

최경은 : 안녕하세요. Talk To Me In Korean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은입니다.

진석진 : 네, 안녕하세요. 진석진입니다.

최경은 : 네, 석진 씨? (네) 오늘 우리 뭐에 대해서 이야기 할까요?

진석진 : 네. 오늘은 노약자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최경은 : 아... 노약자석.

진석진 : 네. 경은 씨. (네) 오늘 출근 할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최경은 : 저는 출근할 때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요.

진석진 : 네. 버스 안에 보면 (네) 웬지 좌석 색깔이 다르잖아요.

최경은 : 네. 그렇죠.

진석진 : 버스 안에는 노약자를 위한 자리가 따로 있어요.

최경은 : 네, 맞아요. 그러면 노약자가 뭔데요?

진석진 : 노약자. 모르세요, 진짜?

최경은 : 네. 모르겠는데요. (아... 정말...) 석진 씨가 설명해 주세요.

진석진 : 네, 알겠습니다. 노약자. 이게 한자로 이루어진 말인데, (네)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노"자는 나이가 들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아...)

그리고 "약"자는 몸이 약하다는 뜻을 나타내요. (아...) "자"는 놈(놈?)

원래 "놈 자" 자인데 (네) 사람을 나타내죠.

최경은 : 아... 그러면 나이 들고 (네)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진석진 :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들었거나 몸이 약한 사람.

최경은 : 임산부들은요?

진석진 : 임산부도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몸이 무겁잖아요.

최경은 : 아... 뱃속에 아기가 있는 임신한 사람을 '임산부'라고 말하죠? (그렇죠)

임산부도 '노약자'에 들어가네요?

진석진 :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노약자들이 앉는 자리를 '노약자석'이라고 합니다.

최경은 : 아... 근데 석진 씨, (네) 버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철에도 있잖아요.

이야기 (lyagi) #1 - 최경은 & 진석진

진석진 : 전철에도 있죠.

최경은 : 그렇죠. 전철이랑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죠?

진석진 : 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지하철을 타 본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최경은 : 네, 맞아요. 석진 씨는 노약자석에 자주 앉아 봤어요?

진석진 : 네, 버스는 자주 앉아 봤는데 지하철에서는 못 앉겠더라고요.

최경은 : 왜요?

진석진 : 아... 너무 눈치가 보여요.

최경은 : 눈치가 보여요? (네) 아... 그래요?

진석진 :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서 (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앉아 봐서 모르겠는데...

최경은 :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네) 전철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네)

노약자석은 항상 비어 있잖아요.

진석진 : 음... 비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노약자 분들이 앉아 있죠.

최경은 : 주로 할머니, (그렇죠)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시죠? (네)

사실 저도 예전에 강남으로 출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보통 2호선을 타면 강남으로 가잖아요.

진석진 : 아..... 그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2호선이군요.

최경은 : 그렇죠. 왜 '지옥철'이라고 하죠?

진석진 : 사람이 너무 많죠. 출근 시간 때는.

최경은 : 네. 사람이 너무 많은 지하철. (네) '지옥 같은 지하철'이라고 해서 (네, 너무 불편해요)

네, '지옥철'이라고 해요. (네) 출근 시간에는 정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제 발이 좀

떠 있는 듯 한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진석진 : 발이 떠 있어요?

최경은 :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서 있는 채로 잘 수도 있어요.

진석진 : 아... 너무 이제 (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최경은 : 네. 꼭 차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옥철에서도 노약자석에는 젊은 사람들은 안 앉죠?

진석진 : 네. 앉으면 안 돼요.

이야기 (lyagi) #1 - 최경은 & 진석진

최경은 : 앉으면 어떻게 돼요?

진석진 : 혼나요.

최경은 : 혼나요? (네) 그러면 석진 씨는 안 혼나면 노약자석에 앉을 거예요?

진석진 : 음... 사람들이 없으면 앉을 수도 있겠죠.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네,
사람들이 없어도 노약자석은 안 앉아요.

최경은 : 아, 그래요?

진석진 : 하지만 가끔 보면, (네) 어린 애들이 앉는 경우도 있어요.

최경은 : 아... 맞아요, 맞아요.

진석진 : 근데 그럴 경우는 (네) 어머니가 (네) 같이 데리고 앉는 경우니까.

최경은 : 아, 정말 어린 아기들.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진석진 : 네. 그럴 때는 봐 줘야 되요.

최경은 : 근데 저는 사실 정말 몸이 아플 때 (네) 노약자석에 앉고 싶은데, 사실 거기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사람들이 제가 아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꼭 참고 노약자석에는 안 앉아요.

진석진 : 경은 씨. (네?) 다음에 아플 때 (네) 다른 사람이 봐도 아프다라고 알 수 있을 만큼 (네)
어디 다리가 부러지던가 (아... 네...) 그렇게 크게 다치세요.

최경은 : 그런 일은 없는 게 좋겠죠?

진석진 : 그럼요.

최경은 : 저 다치라고 하는 거 아니죠?

진석진 :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최경은 : 아,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석진 씨처럼 지하철에서는 절대 노약자석에
안 앉는데 (네) 버스에서는 사실 좀 사람들이 앉잖아요.

진석진 : 그럼요. 좀 앉죠.

최경은 : 네,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네) 버스를 탔다가 너무 피곤해서 노약자석에 앉았었어요.
(음...) 근데 제가 일부러 잔 건 아닌데 (네) 잠이 들어 버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제 앞에 할머니가 (아...) 딱 서 있으신 거죠. (아... 맙소사)

- 최경은 : 그래서 눈을 떴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사실은. 일부러 잔 게 아닌데도 (네)
왠지 모르게 (네) 빨리 비켜 드렸어야 됐는데 못 비켜 드렸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창피해서 벌떡 일어났는데 버스가 덜컥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다시 딱 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정말 빨개져서 (네)
더 창피한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어요.
- 진석진 : 아, 참... 버스에 탔을 때 (네) 정말 노약자 분들이 눈에 보이자마자 바로 양보할 때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앉아 있다가
양보해 드려야지 (아...) 그런 생각을 하다가...
- 최경은 : 석진 씨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사람들이, 일부러 자는 척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혼나요) 일부러 자는 척을 하지 않고 정말
잠들어도 혼나기 때문에. (네) 그러지 마세요, 석진 씨.
- 진석진 : 맞아요, 맞아요. 혹시 노약자석이나 (네) 아니면 그냥 일반석에 앉아 있더라도 (네)
노약자 분들이 보이면 바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 최경은 :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네) 노약자석이 아니어도 (네) 그냥 앉아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에 오시면 자리를 비켜 주는 게 예의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노약자석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네) 노약자석이 있는지 저희 TalkToMeInKorean.com으로
오셔서 코멘트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노약자석이 있으면 자리를 비켜 주시는 지도
꼭 코멘트로 남겨 주세요.
- 진석진 : 네. 노약자 마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최경은 :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석진 : 네. 지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 최경은 : 안녕히 계세요.
- 진석진 : 안녕히 계세요.